

CONTENTS

2026.06

Vol.235

월간 <한우마당> 웹진을 휴대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소식

- 33 **한우뉴스**
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5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 35 협회 활동-지회·지부 소식

기획·특집

- 44 **기획**
한우법 시행령 핵심 쟁점 <3·끝>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 제한
한우산업 생태계 보호차원 '성과'
- 50 **특집**
기후솔루션 온실가스 보고서에 대한 반박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비교의 '함정'
- 54 **정책**
축사지붕 추락사고 실태과 예방대책

- 56 **특별기고**
한우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3대 안전사고와 예방 수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황옥화 연구사
- 62 **협회사업 안내**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가격표
직거래유통망 (이용도축/공판장 출하)

현장·탐방

- 66 **업체탐방 - 주목! 이제품**
지오스톤 이찬용 대표

오피니언

- 72 **명품한우 리포트**
농협음성공판장 '최고의 소'-4월
축산물품질평가원 총복지원
- 74 **송아지 설사의 원인과 대책 (2)**
행복을 찾는 동물병원 이한경 원장

통계·정보

- 80 한우사육 100문100답
- 84 한우산업 주요통계
- 90 구독안내



소양호 집단폐사 논란과 축산업 오염원 주범 발언, “근거 없는 낙인찍기를 멈춰라”

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협회는 지난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5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집단폐사의 원인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여름에 돼지 똥하고 소똥, 또 거기서 농약친 물이 유입됐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아무런 정밀조사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원도 축산인을 소양호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버린 셈이다.

현재 우리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인들은 가축 분뇨 처리 기준 준수, 퇴비 부숙도 관리, 약취 저감 등 현장의 엄격한 책임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오고 있다. 생산비 폭등과

한우 가격 불안정, 수입 축산물 확대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농가들에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깊은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소를 비롯한 축산업은 일부 왜곡된 환경 정보로 인해 적잖은 오해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농민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환경 정책도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논란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김성환 장관은 지난 5월 25일 “발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에 우리 협회는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 사안을 넘기지 않고,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부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면담이 성사되는 대로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향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 산업이 피해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할수록 ‘적자’ 비육우 마리당 100만원 손실

2025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생산비 부담이 여전히 높아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모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99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 기준 -161만4천원보다 61만5천원(38.1%)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약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우 비육우 농가의 경영수지는 2021년 마리당 29만 2천 원의 순수익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 마이너스 68만9천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142만6천원, 2024년에는 -161만4천원까지 손실이 늘어났다. 지난해 적자 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을 생산비 상승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생체 100kg당 128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비육용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542원에서 531원으로 2.1% 하락했지만, 비육우 생산의 가장 큰 비용 요소인 송

아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송아지(6~7개월령) 산지 가격은 마리당 354만1천원에서 411만5천원으로 16.2% 상승하면서 가축비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른 공급 축소 영향으로 도매가격은 상승했다. 한우 비육우 평균 경락 가격은 2024년 kg당 1만7,963원에서 지난해 1만9,645원으로 9.4% 올랐다. 이에 따라 적자 폭은 줄었지만 생산비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산비 부담이 여전히 만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6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산업 정책 간담회 개최



☞ 2026년 5월 6일(수)

📍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

협회는 지난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내산 조사

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축산물인증 평가 개선 ▲축산 ICT 지원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 건의사항과 정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이 한우농가가 불안 없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부가 한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14

협회-자조금,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참가

☞ 2026년 5월 14~17일(목~일)

📍 일산 킨텍스

협회와 자조금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 참가해 ‘모두의 식탁을 한우롭게’라는 주제로 한



우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 영양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했으며, 다양한 시식 메뉴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한우 스테이크를 비롯해 한우 코인육수, 한우 캐릭터 키링, 한우 캐릭터 지비츠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5월 주요소식-활동

민경천 회장은 “이번 베이비페어는 예비 부부와 영유아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리인 만큼 한우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임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우의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선택받는 식재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자조금, 전국 37개 소규모 정육점 할인 행사전개

📅 2026년 5월 13~28일(수~목)

📍 전국 37개 소규모 정육점

협회와 자조금은 지난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전국 37개 소규모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우 소프라이즈’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정육점에서도 합



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참여 채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소규모 정육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민경천 회장은 “소비자들이 생활권 내 정육점에서도 품질 좋은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식육점 판매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자조금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 함께 한우 소비 촉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WOO News

2026년 5월 협회 주요소식-활동

지회지부 한우나눔 소식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서는 한우자조금 사업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 계층에 한우(불고기/정육)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p>경주시지부</p>		<p>☞ 2026년 5월 6일(수) 📍 아동복지시설 성애원, 미혼모자출산지원시설 누리영타운</p>
<p>성주군지부</p>		<p>☞ 2026년 5월 6일(수) 📍 예원의 집, 실로암 육아원, 관운사 가야복지센터, 경북 노인간호전문센터</p>
<p>고흥군지부</p>		<p>☞ 2026년 5월 7일(목) 📍 고흥군공립노인요양원, 고흥종합노인요양원, 고흥종합복지센터, 고흥지등복지센터, 고흥참빛요양원</p>
<p>구미시지부</p>		<p>☞ 2026년 5월 7일(목) 📍 구미 푸른요양병원</p>



5월 주요소식-활동

지회지부 한우나눔 소식

<p>파주시지부</p>		<p>📅 2026년 5월 7일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p>
<p>해남군지부</p>		<p>📅 2026년 5월 7일 📍 해남군청</p>
<p>의성군지부</p>		<p>📅 2026년 5월 8일 📍 의성군청 복지과</p>
<p>청도군지부</p>		<p>📅 2026년 5월 9일 📍 사랑의 무료급식소</p>





HANWOO News

2026년 5월 협회 주요소식-활동

영주시지부



📅 2026년 5월 11일
📍 영주시 노인복지시설 만수촌 및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완도군지부



📅 2026년 5월 11일
📍 완도군행복복지재단

김천시지부



📅 2026년 5월 12일
📍 김천불교사암연합회 무료급식소,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안동시지부



📅 2026년 5월 12일
📍 아네트의 집

예천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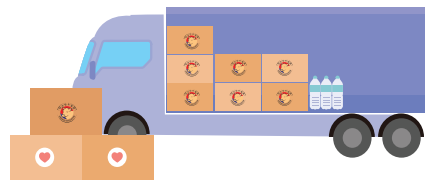
📅 2026년 5월 18일
📍 예천군청



5월 주요소식-활동

지회지부 한우나눔 소식

<p>대구시지부</p>		<p>📅 2026년 5월 19일 📍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p>
<p>포항시지부</p>		<p>📅 2026년 5월 19일 📍 포항종합사회복지관</p>
<p>영천시지부</p>		<p>📅 2026년 5월 20일 📍 사랑의 무료급식소</p>
<p>서산시지부</p>		<p>📅 2026년 5월 21일 📍 서산시 자원봉사 센터</p>





HANWOO News

2026년 5월 협회 주요소식·활동

한우 소비홍보 행사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서는 한우자조금 사업을 통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고품질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무료 시식 행사를 통해 한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순창군지부



2026 화식한우 시식-할인판매

☎ 2026년 4월 30~5월 1일(목~금)

📍 순창읍사무소 광장

양구군지부



청춘양구 곰취축제

☎ 2026년 5월 2~3일(토~일)

📍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

진도군지부



진돗개 페스티벌

☎ 2026년 5월 2~3일(토~일)

📍 진돗개 테마파크 일원

부안군지부



2026 부안마실축제

☎ 2026년 5월 2~5일(토~화)

📍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5월 주요소식-활동

밀양시지부



**2026 밀양아리랑대축제
한우 무료 시식회**

☞ 2026년 5월 8일(금)

📍 밀양 삼문 강변



함안군지부



**제1회 함안군 청보리 작약축제
한우소비 촉진 행사**

☞ 2026년 5월 8~10일(금~일)

📍 함안군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내
(제1 캠핑장)



영광군지부



**2026 영광찰보리축제
한우 소비홍보**

☞ 2026년 5월 9~10일(토~일)

📍 영광군 지내들 돌탑공원





농가소통-교류 지원 활동

협회 시군지부에서는 수급 안정, 방역 대책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농가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괴산군지부



한우농가 간담회(교류지원)

📅 2026년 5월 14일(목)

📍 대명에너지 세미나실

김천시지부



한우농가 간담회(교류지원)

📅 2026년 5월 6일(수)

📍 김천대자연한우프라자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 제한 한우산업 생태계 보호차원 ‘성과’

시도 조례 개정 등 정책 연계 ‘한우법’ 본격 시행 준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법이 오는 7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우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우협회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일정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서는 한우법 시행과 맞춰 시도 조례 등의 개정을 준비하는 등 한우법 시행과 함께 한우산업의 제2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제한’은 이번 한우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만 만들어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한우협회 임직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했다”며 “중요한 것은 한우법으로 대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기업 규모 한우농가 보호차원에서 '중기업 이상' 타당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제한을 위해서는 우선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법상 기업규모는 크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중소기업)을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률을 정리해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와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며, 해당 회사만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다시 업종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대기업 이상과 중기업 이상, 중소기업 이상으로 기업을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학자들과 한우업계전문가들은 한우 생산업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는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및 기존 한우농가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기업 이상 규모의 영리목적의 조직체가 한우 생산업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모의 기업이 라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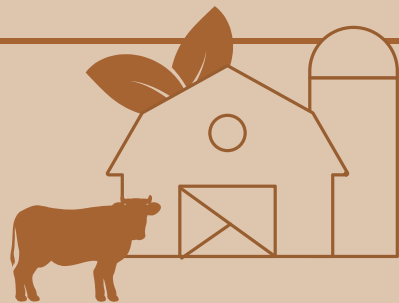
을 전제로 한우 생산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우 생산업 진입규제가 없음에도 대기업의 한우 생산 분야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규모 이상을 범위로 할 경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조문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고 결국 입법목적(기존 한우농가 보호)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농가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우 생산업 참여기업 충족 기준 한우법 입법목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우선 승인제 도입 또는 영향평가 의무부과 등의 새로운 규제신설은 법률상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한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이미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참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것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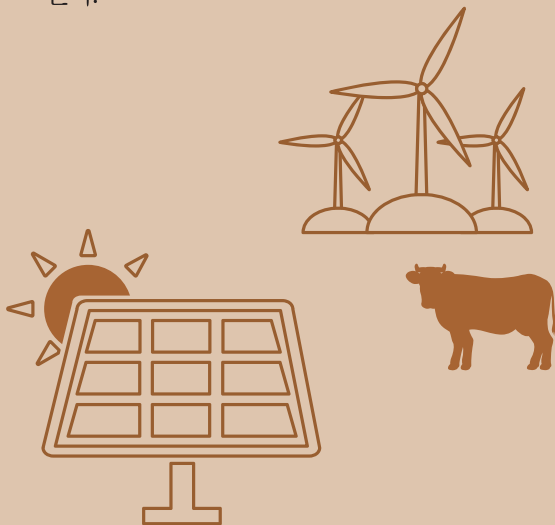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라. 그 밖에 한우의 생산 및 사육과 관련하여 축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기준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법이 한우농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반영하여, 한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한우생산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 및 조사료 자가생산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법은 입법목적에서 제1조,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도모를 명시하고 있고 3조 3항에서 한우농가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1조제2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제한 한우법 제26조에 명시



한우법 제26조에는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제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체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우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으로 법 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시행령

제14조(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

시행규칙

제8조(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1]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1. 가축사육업 등록,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그밖의 축산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충족 등 관계법령의 규정 준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 수립**

항목	내용
가. 저메탄사료의 급여	1) 메탄저감제를 가축 성장단계별 급여량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는 것. 이 경우 메탄저감제는 국립 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에 한정 2) 메탄저감제의 첨가량은 일일 총 배합사료 건물 급여량 kg당 1g를 기준으로 산정
나. 사육시간 단축	연간 전체 출하량의 30~50%를 사육월령 28개월 미만의 한우로 출하할 것
다. 저탄소 분뇨처리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고정형·설비 부착형으로 설치 하는 것. 다만 한우이외에 타 축종과 동시 사육하여 퇴비사를 공유할 경우에는 한우 비율대로 설비 되어야 한다.

3. 한우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할 것

시행규칙

제10조(한우 생산업 참여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 기업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력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 협력계획 목표, 방향, 농가·지역경제 영향분석, 상생방안 등 포함, 보고서 참고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비교의 ‘함정’ 항공편 비교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후솔루션(SFOC), 온실가스 관련 보고서 발표
서로 다른기준 적용-동일 선상 비교 ‘통계 왜곡’

최근 기후솔루션(SFOC)에서 발표한 리서치에 따르면 축산업이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소고기 소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김포-제주 항공편 편도 21회 비행과 맞먹는다”는 식의 비교다.

축산업은 생산 전 과정을 포함해 산정한 반면, 항공은 비행 자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 비교 기준과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당한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기후솔루션 측의 주장과 논리를 요약하고, 이후 해당 비교 방식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단기간 온난화 효과가 훨씬 강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농축산 부문의 메탄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SFOC), 온실가스 보고서 표지

축산업, 자연 순환-자원 재활용 기반으로 작동
심각한 환경오염 산업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차이

축산업-공급망 전체 계산	항공산업-항공기 엔진 배출만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작물 생산 과정 + 조사료 재배 및 운송 + 가축 사육 과정-분뇨 처리 + 도축 및 가공 과정 + 냉장-유통-판매 과정 + 소비 및 폐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판 채굴-제련 과정 비행기 가공-조립 등 제작 과정 항공유 시추-정제 과정 항공유 보관-운반 과정 공항 건설 및 운영 + 항공기 이착륙-비행 과정

보고서에서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단순히 가축의 장내발효에 한정하지 않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즉, 소고기 1kg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배출 체계로 간주하여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에 반해, 항공은 단순히 비행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 배출한 직접 배출량만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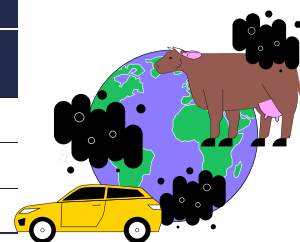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전 과정을 통일하게 환산해볼 경우 온실가스 세계 총 배출량 중 교통분야는 16.9%, 축산은 7%에

그치고 국내로 좁혔을 때 2021년 축산물 소비자 인식개선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분야는 13.5%, 축산 직접 배출은 1.3%에 불과하다.

가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순환 탄소로써 사료작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가축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시 배출하는 구조를 지니며 이는 화석 연료처럼 지하에 저장된 탄소를 새롭게 대기 중에 축적시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을 적극 재활용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짚, 왕겨, 밀기울부터 기름을 짜

분야	세계배출		국내배출	
	배출량 (백만톤CO2eq)	총배출량 중 비율	배출량 (백만톤CO2eq)	총배출량 중 비율
총배출량	48,939.7	-	727.6	-
농업(축산)	5,817.7	11.9%(7.0%)	21.2%(9.4%)	2.9%(1.3%)
교통	8,257.7	16.9%	98.1	13.5%



고 남은 부산물, 설탕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 버섯배지 등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업과 식품 폐기물을 판매하여 대부분 가축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사료업체가 농산 부산물 등을 구매하는 금액은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축산업은 자연의 순환과 자원 재활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축산업이 교통분야(항공 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후솔루션의 '축산업 온실가스=김포-제주 항공편 21회'라는 비교는 대중적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온실가스 문제는 과학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다. 축산업계 또한 탄소 배출에 대비하여 저메탄 사료 기술, 분뇨 처리 고도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이다.



온실가스 문제,
과학적 객관·공정성 중요
저메탄 사료 기술 등
축산업계도 적극 동참을

출처: 농장과 식탁

이미지 출처: Threads 한중에스에스 hanjung_ss



축사지붕 추락사고로 3년간 28명 사망 한우협회, 농식품부와 대책마련 나섰다



태양광 시설 확대로 추락사고 증가세
산업재해 예방교육·안전캠페인 진행

축사 지붕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농축산업 현장에서 꽤 자주 보고되는 산업재해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지붕이 약하거나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 그리고 안전장비 없이 작업할 때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사지붕 추락사고로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사고 유형은 지붕 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뎈 추락하거나 채광용 판을 밟고 붕괴되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지붕 수리(철거)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붕 공사의 원인으로는 개·보수 작업이 62.3%로 가장 많았지만 태양광 설비 공사도 22.6%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늘면서 추락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축사지붕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슬레이트 등 가벼운 재질로 설계돼 있고 채광창 역시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취약해 밟으면 쉽게 깨지는 구조로 돼있다. 특히 지붕은 경사와 먼지·이끼 등이 끼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작업 방식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데, 전문 인력이 아닌 농가가 직접 올라가 안전벨트와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3~7m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 중상 또는 사망으로 직결된다. 이렇듯 한우농가의 지붕 추락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점과 부실한 작업환경, 그리고 안전관리 부재가 겹친 복합적인 사고인 셈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와 농식품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안전캠페인 등을 진행해 축산농가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지붕공사 예정 농가인 47개소에 대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신고 조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간 소규모 농가 400개소를 대상으로 추락, 질식, 폭염 대응 장비와 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우협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는 “축사 추락사고는 대부분 한우와 낙농 농장에서 주로 발생했고 28건 중 25건이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였다”며 “특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수혜가 불가능한 데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이에 해당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축사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우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3대 안전사고와 예방 수칙



황옥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연구사

“

우사 지붕 보수,
사료배합기 점검, 소 관리 등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축산업은 가축 사육시설, 농기계·장비, 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작업이 많고, 시설 노후화와 안전장치 미흡이 함께 상존하는 현장이기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우농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우사 지붕 보수 중 추락하거나, TMR 사료배합기 점검 과정에서 회전체에 끼이거나, 소의 돌발 행동으로 작업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중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이에 한우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안전사고 유형인 우사 지붕 추락사고, TMR 사료배합기 끼임사고, 소 돌진사고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예방 수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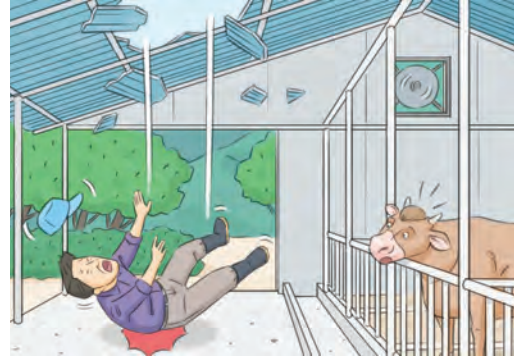
● 우사 지붕 추락사고

추락사고는 작업자가 지붕, 사다리, 작업발판 등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한우농가에서는 주로 우사 지붕 보수, 지붕재 교체, 지붕 전기설비 공사, 채광창 주변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사 지붕에는 칼라강판¹⁾과 함께 채광을 위한 선라이트²⁾, 즉 투명 또는 반투명 채광창 자재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 작업자가 채광창을 일반 지붕재로 생각하고 밟을 경우, 자재가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지붕재는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부식으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우사 지붕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기술에 관한 규칙, 2026.3.2. 시행).

첫째, 지붕 작업 전에는 지붕재의 노후 상태, 채광창 위치, 작업자 이동경로, 추락 위험구간을 미리 확인한다. 특히 선라이트와 같이 강도가 약한 자재는 직접 밟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덮개를 설치한다.

둘째, 작업자는 안전모와 미끄럼 방지 기능



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만약 혼자 작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늦어질 수 있기에 지붕 위 작업 시 주변 작업자와 연락체계를 갖춘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붕에 오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가장자리보다 약 90cm 이상 높게 사다리가 위치하도록 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지붕재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다섯째,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붕 아래에 수평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뒤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한다.

1) 칼라강판 : 다양한 색상을 입힌 강재, 건물 외관의 주요 마감재

2) 선라이트 :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채광을 위해 축사에 주로 설치되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 자재

● TMR 사료배합기 끼임사고

TMR 사료배합기는 조사료, 농후사료, 부산물, 첨가제 등을 절단하고 혼합하는 장비이다. 한우농가는 소의 사료 급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장비이지만, 내부 회전체와 칼날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끼임에 의한 절단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는 주로 배합기 내부에 낀 벧짚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나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회전체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나 발을 넣거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내부를 확인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TMR 사료배합기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기술에 관한 규칙, 2026.3.2. 시행).

첫째, 배합기 청소, 점검, 수리 등 작업 전에는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한다. 이 후 회전체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한다.

둘째,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실수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전원 스위치 인근에 '점검 중', '작동 금지' 등의 표시를 해둔다. 가능하다면 전원 스위치 잠금 장치를 활용



하여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전원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칼날이 있는 회전체 부위에는 안전덮개, 안전망, 안전바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 하며,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에서 서는 장비를 가동하지 않는다.

넷째, 험령한 작업복, 끈이 늘어진 옷, 목장갑 등은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작업복은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다섯째, 비상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 전 그 위치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한다.

● 소 돌진사고

소는 큰 소리, 갑작스러운 움직임, 낯선 사람 등에 민감히 반응하는데, 이때 몸집이 크고 무거운 소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작업자가 소와 부딪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점검, 대피로 확보 등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기본수칙 반드시 실천



게 된다. 이러한 소 돌진사고는 치료나 주사 작업, 이동·분리 작업, 우사 내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미소는 송아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돌보기 위해 우사로 들어간 작업자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갑자기 밀치거나 들이받을 수 있다. 이때 좁은 우사 안에서 대피 공간없이 작업하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소 돌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소를 다룰 때에는 2인 1조로 작업하

고, 작업 중에는 항상 소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소가 흥분하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보이면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평소 공격성이 있거나 예민한 소는 별도로 표시한 후 작업 전, 뿔에 밧줄을 묶거나 안전문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움직임 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자는 단순히 경험에 의존해 접근하기 보다, 개체별 성향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셋째, 좁은 우사에서 작업할 때에는 대피로를 확보하여, 소 돌진 시 작업자가 벽과 소 사이에 끼이지 않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송아지를 돌볼 때에는 어미소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가능하면 어미소를 분리하거나 보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 어미소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해야 한다면 어미소와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여 정면에서 갑자기 접근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용접, 절단, 기계작업 등 큰 소리나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소를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한 장소에 소를 이동시키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한 뒤 작업한다.

● 마치며

한우농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사 지붕 보수, 사료배합기 점검, 소 관리와 같이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작업 중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익숙함은 작업 효

율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위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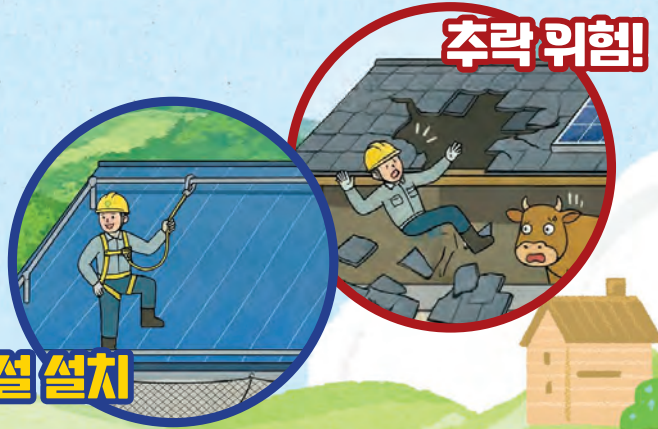
특히 추락, 끼임, 소 돌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점검, 전원 차단, 대피로 확보와 같은 기본수칙을 반드시 실천한다. 안전사고 예방은 거창한 시설 투자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작업 전 한 번 더 살피고, 기계를 멈춘 뒤 확인하고, 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작은 습관이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최근 농작업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우농가에서도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문화가 필요하다. 모든 작업자가 함께 기본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한우농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작은 실천과 예방을 위한 투자가 결국 한우농가의 지속가능성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미처'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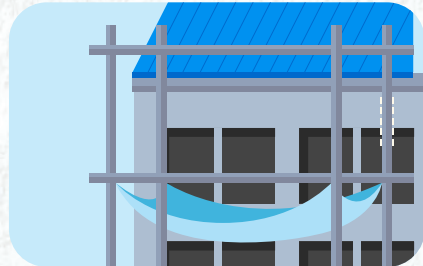
축사 지붕 위 추락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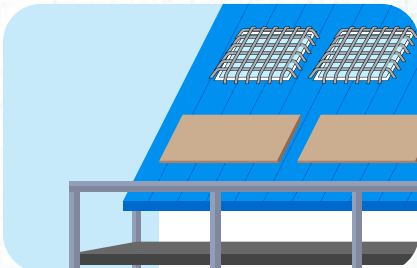
지붕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



✓ 지붕 위 작업 시 주의
(보강대 없는 지붕, 파손된 지붕 등)



✓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 채광창 덮개와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 안전교육 및 안전대 착용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품질만족&가격만족! 한우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농가생산비 절감 및 가격표준 역할!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사료



◆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 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육성									
생후 월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체중 (kg)	200	220	240	260	285	310	335	360	390	420	출하체중 810kg 이상	
일당중체량 (kg)	0.8		0.8 - 1.0								0.88 kg	
조사료	건초	2.0	2.0	자유채식								[기타관리] ■ 비육촉진제, 항생제 사용안함 ■ 비육마무리 단계 - 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 ■ 애정(사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볏짚											
배합사료 급여량	3.0	4.0	4.0	4.0	4.5	4.5	5.0	5.5	6.0	7.0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설사 및 호흡기 예방		■ 가능하면 건초 자유급여 ■ 반추위와 소화기관 발달시켜 튼튼한 비육밀소를 만들 (기초체형 형성)									
중요 포인트	■ 구충 버즘		■ 거세실시 ■ 음수조 철저 관리 ■ 미네랄 블록 급여									

비육 구분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 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전기								대한한우 후기							
생후 월령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체중 (kg)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15	740	760	780	795	810	출하체중 810kg 이상
일당중체량 (kg)	1.0 - 1.2								0.6 - 0.8						0.88 kg	
조사료	건초	2.0	2.0	1.0												[기타관리] ■ 비육촉진제, 항생제 사용안함 ■ 비육마무리 단계 - 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 ■ 애정(사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볏짚	1.0	1.0	1.0	2.0	2.0	2.0	2.0	1.5	1.5	1.5	1.5	1.5	1.5	1.5	
배합사료 급여량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5	9.0	9.0	8.5	8.0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체성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충분한 사료급여에 의하여 골격과 근육성장이 충분히 발달되도록 하는 시기 ■ 사료는 영양균형에 맞추어 정확히 급여 ■ 근육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근간지방 최고, 피하지방 부착이 만들어지는 시기								■ 피하지방 최고, 근육내 지방부착 되어 지방교집이 이루어져 육질이 마무리 되는 시기 ■ 육색과 지방색을 위하여 녹색건초나 청초급여 금지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							
중요 포인트	■ 우사내 환기 관리 ■ 요결석 관찰 ■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선풍기 가동								■ 생후 24개월령에 1차 초음파 측정 출하 2개월전에 2차 초음파 측정 (육량과 육질 조절)							

◆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 (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90	210	230	250	270	285	300	315	330	345	365	385	405	420	435	450	465		480	500
일당중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 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량	배합	3 - 4 kg						3 - 4 kg										4 - 5 kg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가능하면 양질의 조사료 급여)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소화기와 반추위 등을 발달시켜 튼튼한 밀소를 만들						■ 발정과 수정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식기에 지방 침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적으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충분히 시키며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 ■ 임신초기에 영양균형을 맞추어 주면 송아지때 설사를 방지할 수 있음				■ 다음 발정과 수정을 위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급여할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2개월~7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블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어린송아지	20.0	2.5	20.0	10.0	0.9	1.5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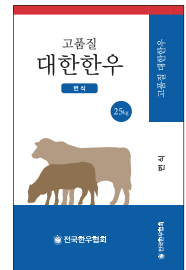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13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번식우	14.0	2.0	15.0	15.0	0.8	1.2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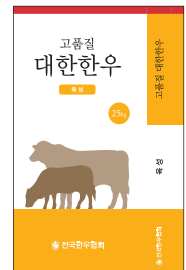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8개월~15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육성기	15.0	2.5	20.0	15.0	0.7	1.2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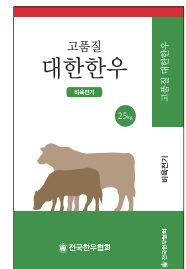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16개월~23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비육전기	13.0	2.5	20.0	15.0	0.7	1.2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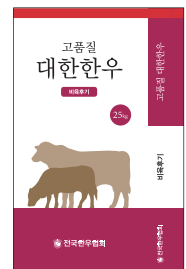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24개월~30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비육후기	12.0	2.5	20.0	15.0	0.7	1.2	75.0



생산비 절감 / 사료가격 투명화 / 고품질 합리적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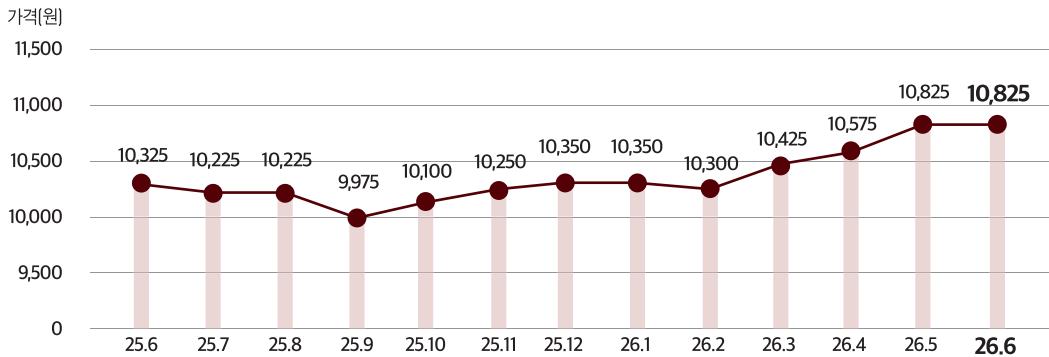
협회 전용사료 '대한한우'

2026년 6월 대한한우 사료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미반영)

 <p>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p>
<p>어린송아지</p> <p>14,500 벌크(kg/원) 558</p>	<p>번식우</p> <p>10,600 벌크(kg/원) 401</p>	<p>육성</p> <p>10,825 벌크(kg/원) 410</p>	<p>비육전기</p> <p>10,975 벌크(kg/원) 416</p>	<p>비육후기</p> <p>11,100 벌크(kg/원) 421</p>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 OEM 생산 협회전용사료는 환율 및 곡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매월 1일 기준가격이 변동됩니다.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과장(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8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8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² 이상 (암소) 76cm ² 이상
가격적용 기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6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²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30~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² 이상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지오스톤

이찬용 대표

친환경 LED 모기 퇴치램프 ‘포그미’ 가축에겐 ‘무해’ 해충에겐 ‘유해’

모기가 싫어하는 특수파장 반도체 이용
‘빛공해’ 스트레스 줄인 친환경 특허제품

 지오스톤



충남 홍성에 위치한 지오스톤은 LED 모기 퇴치 방역 램프 ‘포그미’를 필두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지자체 보조사업을 시작으로 충남지역을 넘어 호남지역까지 제품의 우수성과 축산에 대한 지오스톤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전국구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회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는 지오스톤은 제품력으로 한우농가들을 감동시키는 업체로도 유명하다. 지오스톤의 진심이 한우농가들에게 통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이찬용 대표를 만나러 홍성으로 가보자.



친환경 LED 모기 퇴치램프 ‘포그미’ 최적의 밝기로 모기 퇴치…소는 편하게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모기 퇴치램프는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지오스톤이 판매하는 ‘포그미’는 소의 특성을 연구해 개발한 특허 제품이다. 적녹색맹인 소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기 힘들어 사물을 거의 흑백으로 인식한다. 포그미는 위스콘신 대학 논문 ‘광주기와 조명’에서 붉은색 15와트까지는 빛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램프의 색깔보다 밝기를 고려해 개발한 제품이다.

보통 타사 해충방제 램프는 야간에 노란색 전구를 밝게 켜서 소들이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포그미는 모기가 싫어하는 최적의 빛 밝기를 구현하면서도 가축의 생체리듬에 영향이 없는 빛을 구현하고 있다.

About us

지오스톤은 2014년 홍성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주하면서 충남과 호남지역의 축산농가에 기자재를 공급해 왔다.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지자체 보조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LED 병해충 방제기 방역램프 ‘포그미’로 축산농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포그미’ 제작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해밀라이트의 독점 총판사인 지오스톤은 ‘포그미’ 외에도 친환경 비타민, 생균제 등 친환경 제품을 주로 취급하며 환경과 축산의 상생을 꿈꾸는 기업이다. ‘포그미’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물론 전국 관공서에도 납품되며 제품의 우수성과 공신력을 더해가고 있다.



친환경 LED 병해충 방역램프 '포그미'



축사-야외용

가정용

낮에도 사용하는 축사에 최적화된 10W 퇴치기

1. 모기기피율 95.2%(밤, 낮 효과가 일정)
2. 아까바네, 럼피스킨 예방
3.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특수파장 반도체
4. 일회용이 아닌 부품별 교체 및 수리가능
5.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도움 주는 제품
6. 가축들이 안정화되어 깊은 숙면을 유지함
7. 축산농가에서 8년간 직접 사용하며 효과 검증

24시간 사용 축사에
최적화된 10W 퇴치기
다양한 변종 모기 퇴치
실증실험으로 입증

차승일 지오스톤 본부장은 “가축들은 빛에 취약해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해야 하는 ‘빛과 어둠의 균형’이 필요하다. 반면 야행성인 모기는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모기 퇴치 램프를 밝게 켜놓는 농장이 많다”며 “‘빛 공해’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포그미는 실증실험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가 검증된 제품으로, 야간에 소가 자는 동안 스트레스는 줄이고 야행성 모기는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그미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모기의 음성주성 습성을 이용해 모기가 싫어하는 최적의 밝기로 활동영역을 차단해 모기를 퇴치하는 맞춤형 요술램프인 것이다.



24시간 켜도 전기세 낮아 유지비 절감 변종 많은 모기 낚에도 유입 안되게 차단

또한 포그미는 최적의 밝기로 전력사용량이 낮아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낚에도 모기퇴치가 가능해 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차 본부장은 “변종이 늘면서 낚에 활동하는 모기도 많고 축사지붕이나 기둥, 급이통 주변에 그늘이 생기면 낚에도 모기 활동이 활발하다”며 “포그미는 24시간 사용해 모기 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포그미의 강점은 전기료가 기존 제품들보다 싸기 때문이다. 보통 모기 램프는 축사 바닥에서 3~5m 높이에 설치하는데 우사바닥까지 빛이 닿으려면 타사 램프는 40와트 정도 밝기의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반면 포그미는 같은 높이에 설치할 때도 축사 바닥까지 빛이 고르게 닿는다는 특징이 있다. 10와트 전기 소모량에도 최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포그미의 기술력이다.

차 본부장은 “포그미와 일반 LED 해충퇴치기의 차이는 기술력에서 시작된다”며 일

하나의 램프로 두가지색을 내는 모그엔 파워



반 제품 대비 소비전력이 3~4배 낮은 10와트 설계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장시간 사용하는 농가일수록 전기료 차이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그미는 해충 퇴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순도 단일 파장을 구현해 대상 해충뿐 아니라 다양한 해충의 접근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해 실제 축산현장에서 포그미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검증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사용해보시면 일반 제품 대비 3~4배 이상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빛에 취약한 소에게 ‘밝은 빛’으로 모기를 쫓는 행위는 ‘모기 잡으려



부품별 수리-저전력으로
내구성-가성비 입소문
10년간 지자체 보조사업
'전국단위' 공급 시작

다 소 잡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와 해충이 기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특수한 축사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품이 포그미"라며 "모기는 특수파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파장 620nm에서 95.2% 기파율을 보인다는 내용의 실험성적서를 통해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제품은 포그미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10년전 가격 그대로, 농가들 신뢰 중요

내구성 월등 가성비-높은 재구매율 자랑

이같은 포그미의 효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모기가 반응하는 LED 파장의 호불호관계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다. 실증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모기 램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포그미의 제품을 농가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것이 지오스톤의 설명이다.



이찬용 대표는 "제품을 판매할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며 "농가에서 실증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매하다"고 말했다.

지오스톤이 자랑하는 포그미의 또 다른 장점은 품질보증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무상으로 2년간 AS를 해준다. 타사 제품들은 LED칩이 칩판에 부착된 형태라 수리가 어려운데 반해 포그미는 입체 LED칩을 사용해 개별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내구성이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밝기와 파장 효과가 일정해 사용해 본 농가들은 내구성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정도다. 물론 다른 어떤 제품보다 재구매율이 높은 것이 자랑이다.

또한 이 대표의 신념으로 10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모든 기자재 값이 올랐음에도 이 대표는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득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해 호국영웅 사업단 활동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홍성군은 물론 충남지역에까지 그의 봉사정신과 축산농가와의 상생노력은 정평이 나 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싼값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해충이 늘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해충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기와 흡혈곤충이 유발하는 아까바네, 럽 피스킨 등 새로운 질병 문제 해결에 미력하나마 농가와 함께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왼쪽부터) 이찬용대표와 차승일 본부장



名品韓牛



농협음성공판장

최고의 소

4월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도체정보



*지난달 한우거세 평균값과 비교함

구분	4월 평균	최고의 소
이력번호	-	002190513469
등급(근내지방도)	4.9	1++A(9)
경락단가	18,416원	40,310원
총단가	7,213,869원	20,114,690원
품종성별(개월령)	52개월	한우암소(34)
등지방두께	13mm	18mm
등심단면적(육량지수)	97	179(64.33)
도체중	394kg	499kg
혈통정보	부	KPN1345
	조부	KPN1087
	조모	002074876226
	모	002168267758
	외조부	KPN1329
	외조모	002092571970

개체유전능력(EPD)



냉도체중

12.888Kg

C



등심단면적

2.713cm²

C



등지방 두께

0.602

D



근내지방도

0.578

B



명품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THE FARMER 경북 상주시이진영 농가

“높은 정육율을 기대...근내 지방도 뛰어난 소”

경북 상주에서 400마리를 사육하는 이진영 농가는 4월 최고 경락가를 기록한 소를 ‘효자소’라고 칭합니다. 우시장에서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했음에도 비육기에는 특별한 질병없이 건강하게 성장한데다 출하 시점에 근육질 체형을 보여 높은 정육율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육성기에는 고단백 저에너지 사료를 급여해 과지방을 방지했고 비육기에는 근육이 생길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이진영 농가의 전언입니다.

원칙 1.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료 급여 : 육성기 고단백 저에너지 사료를 공급해 과지방을 방지했다.

원칙 2. 비육기 근육질 체형 유지하도록 사양관리 : 비육기에는 근육이 생길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사양관리를 했습니다.

THE BUYER 우령찬한우 원용덕 대표 (음성공판장 65번 중도매인)

“육질 훌륭하고 도체중 대비 수율이 좋은 소”

암소는 보통 수율이 안 나오는데 등심단면적이 매우 커 거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율이 월등했습니다. 등심·안심·채끝, 일명 ‘등안채’로 불리는 인기 부위의 수율이 좋아 구매 후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육색, 마블링, 조직감이 훌륭해 육질면에서 나무랄게 없었고 도체중 대비 등안채 수율이 근내지방도 9번 소 중 가장 뛰어나 보여 구매했는데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암소는 키우기 어렵고 좋은 암소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호합니다. 특히 이 소는 조직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경매 시 도체를 보면 육색이 맑고 조직이 단단한 소는 숙성을 해도 풍미가 월등하고 보존기간도 늘어납니다.

중도매인들은 수율이 좋은 소를 선호합니다.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사양관리를 통한 사육은 농가들이 전문가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소를 키워야 합니다. ‘등안채’ 인기부위의 수율이 잘 나오는 소는 ‘시세가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어려운 시기라도 좋은 소를 출하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도매인은 많습니다.



행복을 찾는
이한경 원장의

수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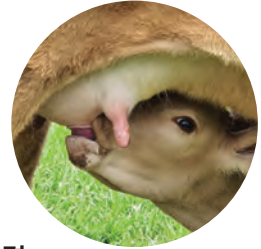
송아지 설사의 원인과 대책 (2)

1) 설사를 일으키는 병인성-환경적 원인

2) 각종 감염이 원인인 송아지 설사

3) 송아지 설사의 치료 방법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송아지 설사의 원인이 되며 분명하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송아지 설사의 원인은 감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축사의 시설이나 환경



이 열악한 시대에는 세균이 원인이 된 설사를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으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 모체에 설사 예방백신을 접종하거나 출생하자마자 초유를 인공포유하여 급여하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감염성 설사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

다발하는 감염성 송아지 설사의 종류

1. 대장균증

대부분 장독혈증성 대장균증 (Enterotoxigenic E. Coli, ETEC)을 말하며 생후 1일령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다. 신생송아지가 출생 2-3일째 하얀 설사 또는 수양성 설사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대장균증이다. 출생 직후 초유를 충분히 먹이면 예방할 수 있다. 소장벽에 대한 대장균 독소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수양성 설사를 보이므로 탈수와



저혈당증,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고 갑작스럽게 폐사하기도 한다. 충분한 항체의 전달 또는 다량의 초유의 섭취, 축사 내외부의 소독 등으로 예방 할 수 있으며 어미에 대한 분만전 백신이 효과적이다.

2. 살모넬라증

생후 1주일 이후에 발병할 수 있으며 혈변 또는 점액변과 함께 40도 이상의 고열, 관절염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패혈증으로 진행된다. 동일 우방 또는 동일 축사의 비슷한 일령의 송아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지의 말단 피부가 원형으로 괴사가 되거나 대이개의 피부가 딱딱해지는 등의 증상은 살모넬라증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 항생제 치료와 수액 처치를 통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한다.

3. 장독혈증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장염

Chlostridium perpringens type C가 주된 원인이며 갑작스러운 심한 설사와 함께 혈변, 장내 가스,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과식이나 사료의 섭취 등으로 장내 세균총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원인으로 생각되며 기생충이나 다른 세균에 의한 장

염과 함께 병발하기도 한다. 증상을 보일 때에는 세균의 독소가 이미 장벽을 공격하여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부분 치료할 시간적 여유 없이 폐사하기 쉽고 치료를 시도하더라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다. 페니실린계 또는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회복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4. 로타바이러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농장의 모든 소가 감염되었다고 할 만큼 가장 대표적인 송아지 설사의 원인이며 보통 생후 3~4일령부터 2주 이내에 다발하며 회색 시멘트와 같은 연변부터 노란색 수양성 설사까지 다양하다. 바이러스가 소장 용모를 공격하여 수양성 설사를 동반하여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산성증, 저혈당증, 저체온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만이 모여 있는 3~4월에 많이 발생하고 동일 축사 내에서는 폭발적





송아지방소독

으로 발생하기도 할 만큼 전염력 또한 매우 강하다. 이 바이러스는 소장 용모 끝부분을 공격하여 우유를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우유의 장내 발효가 진행되어 가끔 가스가 차거나 수양성 설사를 보인다. 발병 초기에는 보행과 식욕이 정상이라서 농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급속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적극적인 수액요법으로 3~4일을 잘 견디면 회복하기도 쉬운 장염이다. 오랫동안 앓게 되면 성장지연으로 인하여 경제성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생후 일주일 미만부터 1개월 사이에 다발하며 계란 노른자를 터뜨린 것과 비슷한 진한 노란색 수양성 설사를 보인다. 소장에서부터 대장의 일부까지 광범위하고 저변에 넓은 염증 부위로 인하여 설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며 탈수로부터 패

혈증까지 쉽게 진행된다. 갑자기 매우 침울해지고 젖을 빨지 못하며 분변에는 악취와 함께 많은 점액이 혼재되어 있고 가끔 혈액이 섞이기도 한다. 로타바이러스에 비하여 더 심한 증상을 보이며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므로 대증요법과 함께 면역학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농가에서는 설사 발생 이후 자가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길게 가는 경향을 보이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해야 한다. 겨울철에 3주령 미만의 송아지가 점액과 악취가 섞인 설사를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6. BVD바이러스

지속감염우 또는 일시 감염우일 가능성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쉽게 치료되지 않는 설사이다. 분변에는 점액과 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치료하는 동안에도 송아지는 서서히 식재되어 간다. 집중적인 치료에도 잠시 호전되는 듯 하다가 곧 재발하는 경향을 반복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설사 진단 키트에서 5종 모두 음성이라면 연구소에 샘플을 보내 진단해야 한다. 어린송아지의 경우 면역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BVD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도태도 고려해야 한다.

7.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전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송아지 설사 원인 기생충이다. 적혈구보다도 작은 원충성 기생충으로 주로 생후 일주일 내외에 많이 발생하고 계속되는 수양성 설사와 함께 항생제 처치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다른 원충성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독제에 사멸되지 않으므로 이 병의 확진이 된 농장에서는 발병 송아지와 모축을 격리하고 가능한대로 우방의 화염 소독을 권장한다. 또한 이 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관리자의 보건 위생에도 주의하며 특히 면역저하자나 어린아이는 우사에 접근하지 않거나 보호복이나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하고 송아지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도록 한다. 국내에는 송아지에서 이 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된 제품은 없는 실정이며 사람용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원충성 기생충 치료제를 활용한다.

8. 지알디아증

대부분 1개월 내외에 많이 나타나는 기생충성 설사이다. 보통은 콕시듐증(아이메리오증)과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에 주의하여 복합감염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 분변의 색은 다양하여 색깔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알디아증도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간이진단 키트로 진단이 쉽게 되므로 보통의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단하여 확진 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알디아증도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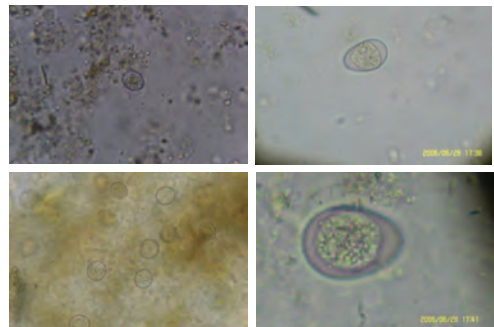
9. 콕시듐증

콕시듐증은 생후 1개월부터 성축까지 대부분의 연령에서 발생 가능한 원충성 기생충성 질병이다. 통상적으로 혈변이라

콕시듐증의 특징적인 이급후충 증상



다양한 형태의 콕시듐 원충



하지만 대부분 물과 같은 혈액이 흘러 다리까지 적시며 매우 특징적인 이급후중(tenesmus)을 보인다. 이 증상은 분변을 쌀 것처럼 꼬리를 들고 힘을 주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수양성 점액이나 혈액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심하면 항문 주위가 심하게 부풀 정도로 힘을 주게 되며 송아지는 탈진한다. 대증요법과 함께 짜먹이는 항콕시뒀제를 먹이며 치료하는 동안 젖을 빠는가, 혈변이 멎는가, 이급후중이 계속되는지의 세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해야 한다. 콕시뒀은 최초 감염부터 증상을 보일 때까지의 잠복기가 꽤 긴 편으로 최소 15일부터 20일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장 점막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으며 가끔은 벌써 패혈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가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1~2일 치료 후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수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복합 감염 송아지 설사

치료가 어려운 설사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한 설사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합감염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기도 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크립토스포리디움이 함께 감염되기도 한다.

특히 생후 1개월 이후에 혈변을 보이는 경우 지알디아와 콕시뒀이 복합 감



복합 감염 진단의예

염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감염원은 어떤 조합으로든지 복합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러스와 기생충이 복합 감염된 경우 항생제 처치만으로는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수일을 치료해도 효과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이 두가지 또는 세가지가 복합 감염되면 설사의 증상도 심해지고 치료 시간도 길어지며 폐사율도 높아진다.

분변의 성상에 의한 설사의 구분

분변의 양과 색깔 그리고 묽기의 정도는 어느정도 설사의 원인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확진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적인 경우 설사를 시작하게 되면 초기에는 장운동의 향진으로 분변 양이 많아지거나 회수가 늘어 자주 변을 보기 때문에 축사에 여기저기 많은 송아지 분변을 볼 수 있다. 분변의 성상은 손상받은 장의 위치와 범위, 장운동 향진에 따른 통과 속도와 수



송아지 설사 원인, 세균성보다 ‘감염’ 대부분
최근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으로 범위 확장

복합감염 의한 송아지 설사 치료 어려워
치료 전 정확한 원인 진단-근본적 치료를

분의 양, 우유의 소화 정도, 출혈 여부, 세균의 증식 등과 연관된다. 주로 급성으로 오는 경우 수양성 설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바닥에는 분변의 모양이 남지 않게 된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또는 회복하면서 점점 수분량이 줄어들어 반죽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정상변으로 돌아오게 된다. 설사변의 색은 흰색, 크림색, 노란색, 초록색, 회색, 붉은색 그리고 검은 타르와 같은 색으로 다양하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주로 흰색이나 크림색을 띠고, 회색변은 로타바이러스 또는 크립토포리디움일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노란색으로 계란 깨진 것과 비슷하다. 녹색변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가 많고, 붉은색으로 혈액이 섞이면 콕시듐, 살모넬라, 지알디아 등이 의심된다. 물론 복합감염의 경우에도 다양한 색을 보이기도 하고 장 점막에서 출혈이 있으면 혈액이 혼재되거나 혈액만 흘러 내

리기도 한다. 검붉은 혈액이 보이거나 분변양은 매우 소량이며 점액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장의 중첩이나 폐색을 의심해 본다. 분변의 색이나 형태로 진단하는 것이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확진처럼 진행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결론

송아지 설사는 출생 일령에 따른 특징적 발생, 분변의 모양과 색깔, 축사의 구조적 형태와 사육 조건, 어미에게 먹이는 사료와 조사료의 종류, 축사 내외부의 방역 조건 등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송아지 설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신과 소독, 사료의 균일한 종류와 양, 모축의 다산 등을 설사 예방의 첫걸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우사육

100문100답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Q 농가 보유축의 능력검정 요령은

능력검정이라 함은 개체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능력검정의 기본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검정에는 산육능력검정과 번식능력검정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암소의 경우 성장능력과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여야 번식에 들어가기 전에 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손쉽게 개체별 체중이나 초음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물의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다.

가. 체중측정 및 선형심사

개체의 체중측정은 생시, 이유 시, 12개월령 측정을 위주로 하며 비육우의 경우 24개월령이나 출하체중을 측

정하면 된다. 또한 체중측정은 동기군의 평균이 측정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동기군에 속하는 모든 개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나. 초음파 측정

초음파 측정은 암소는 12개월령일 때(즉, 암소가 속한 동기군의 평균이 12개월령이 되었을 때) 실시하고, 거세 비육우는 출하 전에 실시한다. 초음파 측정은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을 측정한다.

다. 개체 및 자손의 도축성적

개체 및 자손의 도축성적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다만, 가능하다면 출하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 한편, 도축성적을 잘 관리하더라도 도축한 개체의 부모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도축한 개체의 혈통 및 농가 보유축 전체의 혈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유전체 육종가를 이용한 보유축의 평가 및 선발

보유암소에 대한 채혈 및 모근채취를 통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체 육종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선발(도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유전체 육종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형질로는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 등이다. 현재 농가가 유전체 육종가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스템’이 개발되어 농가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근채취 및 채혈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암소의 유전체 육종가를 평가하고 이를 선발에 이용이 가능하다.



모근채취



Q 농가 보유 암소 중 우량 암소 선발 방법은

일반적으로 번식우 관리는 1년 1산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분만 후 공태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송아지 포유와 운동을 통해 자궁 회복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유와 운동이 병행될 경우 자궁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30일 정도 걸리며, 분만 후 45일 전후에 발정이 온다.

농가에서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중 몇 마리를 도태하고 몇 마리를 번식우로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도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농가는 아마도 생존하는 모든 암송아지를 육성하여 번식우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발률은 100%(도태율 0%)로 암소에 대한 선발은 실시하지 않은 것이 된다.

유전적인 개량량은 영구적으로 해당 축군에 누적되어 작용하므로 일단 달성된 개량량은 개량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량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개량 방향에 맞추어 가축을 도입하거나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형질을 개량할 것인가?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수태율, 번식 간격, 12개월령 체중, 근내지방도 등과 같은 개체별 특성을 말함)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개체 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목표설정은 가능한 2~3개 형질 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개량 목표 설정

- ① 경제적으로 중요한 형질을 나열해 본다.
- ② 시장이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나열한다.
- ③ 실현가능한 나의 미래 생산 목표를 나열한다.
(예시) 56일 수태율 90%, 자연분만 95%, 분만간격 12개월 등
- ④ 축군의 현재 능력을 나열해 본다.
- ⑤ 각 형질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개량 목표를 나열한다.



적절한 암소선발 방법의 선택

교배 전
선발

교배 전 선발은 암소가 번식에 들어가기 전에 도태를 하여 능력이 낮은 암소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기회를 없앴으로써 축군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미경산우의 경우 개체의 능력(성질, 외모/체형)에 따른 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발을 하려면 암송아지에 대한 능력검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배 전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가 가능하여 조기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

교배 후
선발

주로 수태율과 같이 번식능력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되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의 도축성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번식성적으로는 수태율, 분만 간격(공태일) 등 번식능력과 송아지 육성능력(송아지의 포유거부 여부, 육성률, 이유 시 체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체형, 성질(난폭, 겁이 많은 돌출행동) 등이 있다. 이러한 형질을 조사하여 선발(도태)에 활용하여야 우량 암소를 선발할 수 있다.





한우산업 주요통계

▶ 한우산업 현황

(단위: 호, 두, 두/호)

년도	구분	사육호수		사육두수		가임암소		호당평균
		호수	증감	두수	증감	두수	비중	사육두수
2022	1	89,343	↓0.2%	3,394,106	↑0.8%	1,610,450	47.40%	38
	2	89,016	↓0.4%	3,554,418	↑4.7%	1,671,529	47%	39.9
	3	88,471	↓0.6%	3,556,256	↑0.1%	1,697,742	47.70%	40.2
	4	87,470	↓1.1%	3,480,739	↓2.1%	1,679,697	48.20%	39.8
2023	1	86,524	↓1.1%	3,462,842	↓0.5%	1,646,662	47.50%	40.1
	2	85,261	↓1.5%	3,569,876	↑3.1%	1,694,065	47.50%	41.9
	3	84,097	↓1.4%	3,513,614	↓1.6%	1,698,324	48.30%	41.8
	4	83,254	↓1.0%	3,434,823	↓2.2%	1,698,986	48.90%	41.3
2024	1	82,227	↓1.2%	3,353,759	↓2.4%	1,635,203	48.60%	40.8
	2	80,590	↓2.0%	3,449,127	↑2.8%	1,658,732	48.10%	42.8
	3	79,251	↓1.7%	3,388,412	↓1.8%	1,658,751	49%	42.8
	4	77,910	↓1.7%	3,287,549	↓3.0%	1,625,169	49.40%	42.2
2025	1	76,808	↓1.4%	3,223,681	↓1.9%	1,580,179	49%	42
	2	75,738	↓1.4%	3,290,334	↑2.1%	1,596,200	48.51%	43.4
	3	74,541	↓1.6%	3,215,159	↑2.3%	1,587,210	49.37%	43.1
	4	73,601	↓1.3%	3,196,726	↓0.6%	1,576,952	49.33%	43.4
2026	1	72,766	↓1.1%	3,098,470	↓3.1%	1,534,546	50%	42.6
	2							
	3							
	4							

▶ 산지가격

(단위: 천원)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큰암소 (천원/ 600kg)	평년	5,371	5,292	5,304	5,256	5,169	5,260	5,192	5,353	5,523	5,693	5,814	5,556	5,399
	2025	5,148	5,198	5,163	5,139	5,087	5,128	5,237	5,587	5,714	5,831	6,194	6,088	5,460
	2026	6,217	6,050	6,249	5,987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거세우 (원/지육kg)	평년	19,326	19,425	19,373	19,637	19,722	19,994	20,088	20,640	21,490	20,388	19,849	19,648	19,965
	2025	18,630	18,321	17,985	18,255	18,236	18,590	19,427	20,485	21,028	21,432	20,941	21,408	19,562
	2026	22,050	21,987	21,716	21,343									21,774
농가수취 가격 (천원/두)	평년	9,014	9,011	8,965	9,120	9,156	9,277	9,308	9,555	9,965	9,502	9,300	9,232	9,284
	2025	8,868	8,702	8,543	8,762	8,735	8,886	9,286	9,751	10,051	10,244	10,052	10,233	9,343
	2026	10,760	10,686	10,554	10,394									10,599
한우평균 (원/지육kg)	평년	18,042	17,987	17,778	17,810	17,673	17,833	17,944	18,830	19,849	19,172	18,743	18,407	18,339
	2025	17,615	17,355	17,053	17,208	16,999	17,321	18,025	19,119	19,806	20,424	19,978	20,363	18,439
	2026	20,903	20,739	20,508	19,892									20,512
암송아지 (6~7개월)	평년	2,642	2,670	2,718	2,784	2,770	2,838	2,879	2,842	3,020	2,922	2,915	2,749	2,812
	2025	2,544	2,616	2,690	2,667	2,793	2,846	2,928	3,104	3,423	3,302	3,270	3,533	2,976
	2026	3,494	3,578	3,596	3,508									3,544
수송아지 (6~7개월)	평년	3,579	3,528	3,639	3,848	3,946	4,098	4,066	4,072	4,285	4,120	4,013	3,815	3,917
	2025	3,585	3,609	3,570	3,714	3,878	3,990	4,138	4,328	4,699	4,587	4,482	4,528	4,092
	2026	4,623	4,714	4,668	4,706									4,678

▶ 거세 평균경락/수취가격 

(단위 : 원/kg)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2	경락	21,129	20,674	21,357	21,550	21,947	22,234	21,808	22,030	22,225	20,626	19,300	18,252	20,980
	수취	9,762	9,489	9,760	9,870	10,074	10,161	9,966	10,090	10,179	9,550	8,975	8,578	9,704
2023	경락	17,672	18,353	18,203	18,028	18,105	18,462	18,625	19,170	20,594	19,087	18,440	17,988	18,561
	수취	8,270	8,571	8,464	8,419	8,455	8,622	8,661	8,876	9,576	8,933	8,667	8,454	8,664
2024	경락	17,714	17,961	17,355	17,468	16,846	16,715	17,185	18,096	19,454	18,500	18,439	18,833	17,963
	수취	8,396	8,477	8,174	8,227	7,951	7,906	8,077	8,451	9,058	8,640	8,648	8,908	8,461
2025	경락	18,630	18,321	17,985	18,255	18,236	18,590	19,427	20,485	21,028	21,432	20,941	21,408	19,562
	수취	8,868	8,702	8,543	8,762	8,735	8,886	9,286	9,751	10,051	10,244	10,052	10,233	9,343
2026	경락	22,050	21,987	21,716	21,343									21,774
	수취	10,760	10,686	10,554	10,394									10,599

※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누리, 축산유통정보, 농협축산정보센터, 한우자조금

한우산업 주요통계

육질 등급별 도매가격 (원/kg)



(단위 : 원/지육kg)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2	1++	23,690	23,614	23,973	24,238	24,920	25,455	24,872	24,538	24,730	22,960	21,950	20,965	23,652
	1+	20,999	20,403	20,951	20,981	21,459	21,877	21,123	21,448	21,633	20,041	18,708	17,534	20,514
	1	19,419	18,303	18,865	18,444	18,137	18,484	17,995	19,079	19,322	18,079	16,629	15,357	18,149
	2	15,351	14,528	14,665	13,956	13,731	14,119	13,375	14,135	14,380	14,210	13,277	11,175	13,851
	3	11,865	11,174	11,136	10,589	10,450	10,736	9,497	9,399	9,440	10,145	9,830	7,604	10,033
2023	1++	20,398	20,784	20,412	20,530	21,103	21,575	21,551	21,663	22,786	21,378	20,658	20,388	21,129
	1+	17,081	17,725	17,432	17,004	17,128	17,455	17,582	18,294	20,012	18,396	17,738	17,168	17,825
	1	15,066	15,863	15,837	14,745	13,950	14,235	14,754	16,352	18,255	16,986	16,235	15,498	15,709
	2	10,574	11,165	11,521	11,152	10,503	10,991	11,201	12,425	14,168	13,341	13,781	13,256	12,022
	3	6,967	7,617	8,176	8,483	7,718	7,838	7,742	8,712	9,566	9,593	11,157	10,515	8,612
2024	1++	20,185	20,574	19,322	19,674	19,235	19,366	19,952	20,676	22,333	20,830	20,567	21,110	20,372
	1+	16,983	17,384	16,345	16,355	15,511	15,547	16,285	17,397	19,206	18,163	17,833	17,968	17,140
	1	15,096	15,149	14,845	14,696	14,037	13,709	14,184	15,593	16,793	16,307	16,434	16,521	15,308
	2	11,846	11,529	11,506	12,063	11,447	11,141	11,243	11,862	12,909	13,258	13,811	14,063	12,198
	3	9,328	8,730	9,136	9,770	9,364	9,107	9,032	9,358	9,542	10,558	10,919	11,921	9,752
2025	1++	21,341	20,682	20,052	20,286	20,450	20,786	21,421	22,573	23,151	23,400	23,027	23,838	21,748
	1+	18,038	17,700	17,333	17,387	17,373	17,661	18,518	19,721	20,495	20,996	20,426	20,783	18,863
	1	16,182	16,064	16,306	16,234	15,968	16,330	17,228	18,305	18,901	19,277	19,034	18,859	17,379
	2	13,266	13,365	13,710	13,701	13,601	13,750	14,217	14,879	15,146	15,613	15,986	16,097	14,440
	3	10,799	10,826	11,052	11,800	11,575	11,733	11,878	12,240	12,358	12,611	13,329	13,574	12,029
2026	1++	24,203	24,339	23,737	23,600									23,970
	1+	21,263	21,353	21,031	20,475									21,031
	1	19,567	19,236	19,260	18,515									19,145
	2	16,242	15,859	16,408	15,735									16,061
	3	13,805	13,082	13,894	13,528									13,577



▶ 쇠고기 수급현황

연도	수요(천t)	공급(천t)			1인당 소비량(kg)		자급률(%)	
		계	생산	수입	전체	한우고기	국내산	한우고기
2021	716.5	716.5	263.7	452.8	13.9	4.4	36.8	31.8
2022	766.7	766.7	290	476.7	14.9	4.8	37.8	32.8
2023	757.0	757	303.1	453.9	14.7	5.2	40	35.5
2024	756.4	756.4	310.7	445.7	14.6	5.6	41.1	38.5
2025	780.3	780.3	312.7	467.6	15.3	5.6	40.1	36.4

▶ 쇠고기 수입량

(단위: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2	39,218	34,349	39,926	36,355	44,669	37,606	43,249	42,067	44,062	36,159	36,726	42,367	476,753
2023	35,649	35,118	43,632	41,615	44,373	39,076	36,508	37,652	31,499	39,393	34,358	35,049	453,922
2024	41,081	27,625	37,769	37,710	35,610	35,925	37,222	38,934	30,916	42,547	40,562	39,823	445,724
2025	34,362	36,163	33,543	41,598	53,033	37,878	46,186	38,061	39,707	33,110	31,489	42,436	467,585
2026	40,740	30,142	41,185	43,454									155,521

▶ 한우고기 수출량

(단위: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5,154	3,321	5,378	2,959	4,265	6,432	7,239	3,152	7,353	2,227	4,090	4,519	57,061
2018	4,506	5,042	4,340	2,784	5,229	3,801	3,828	5,480	3,996	5,307	6,224	14,708	65,245
2019	7,016	1,951	3,928	3,037	4,937	3,643	4,658	6,897	3,974	4,348	2,719	4,508	51,616
2020	3,075	2,970	4,686	4,723	3,545	5,475	4,579	1,804	4,994	3,227	4,178	5,629	48,882
2021	3,470	3,016	3,142	4,911	2,715	1,446	3,757	2,477	1,383	3,970	3,029	5,448	38,764
2022	1,379	1,473	3,447	4,122	4,077	6,970	4,240	2,756	3,100	4,280	3,434	5,321	44,586
2023	702	3,542	3,509	3,228	4,010	6,652	9,571	12,765	4,598	2,218	3,083	8,296	62,174
2024	5,315	1,310	4,889	3,955	3,102	4,004	2,677	3,632	3,091	4,294	7,528	5,703	49,500
2025	4,588	2,638	2,530	5,135	2,516	3,540	6,268	3,755	5,622	4,284	6,825	18,187	65,888
2026	9,835	4,727	5,060	6,468									26,090

한우산업 주요통계

▶ 등급판정두수



(단위: 두)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3	암	41,961	31,799	40,001	36,466	39,899	40,114	37,481	47,197	55,397	29,108	33,221	36,636	469,280
	수	804	334	407	387	344	346	283	383	839	262	321	317	5,027
	거세	45,308	32,383	36,778	33,002	35,524	31,387	30,659	43,954	53,080	34,892	37,687	40,450	455,104
	합계	88,073	64,516	77,186	69,855	75,767	71,847	68,423	91,534	109,316	64,262	71,229	77,403	929,411
2024	암	58,275	28,241	36,084	39,272	41,819	37,153	41,684	53,816	35,948	38,085	33,392	43,541	487,310
	수	669	438	350	370	439	360	343	495	541	317	277	379	4,978
	거세	64,862	30,805	32,949	37,033	36,564	31,433	36,671	55,434	39,889	44,679	37,036	50,769	498,124
	합계	123,806	59,484	69,383	76,675	78,822	68,946	78,698	109,745	76,378	83,081	70,705	94,689	990,412
2025	암	48,734	28,792	31,385	41,041	36,550	33,781	40,921	38,144	58,845	26,347	29,929	37,149	451,618
	수	622	268	324	260	362	304	343	248	585	282	232	297	4,127
	거세	58,575	33,525	33,255	43,833	34,444	32,240	37,700	38,179	67,164	33,099	34,562	45,374	491,950
	합계	107,931	62,585	64,964	85,134	71,356	66,325	78,964	76,571	126,594	59,728	64,732	82,820	947,695
2026	암	48,186	27,123	31,190	38,242									144,741
	수	339	376	523	288									1,526
	거세	60,962	30,239	34,159	37,729									163,089
	합계	109,487	57,738	65,872	76,259									309,356

▶ 도축두수



(단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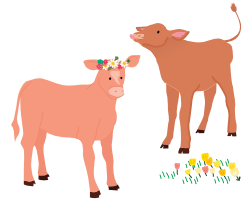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4	도축두수	142,549	63,354	79,420	90,715	84,301	76,876	91,687	118,879	88,299	89,771	78,536	110,328	1,114,715
	한우(암)	60,312	26,171	36,205	41,442	39,766	37,193	43,550	52,627	37,475	36,715	32,862	45,621	489,939
	한우(수)	67,822	28,875	33,462	39,807	34,847	31,653	38,617	55,308	42,256	42,805	36,825	54,021	506,298
	합계	128,134	55,046	69,667	81,249	74,613	68,846	82,167	107,941	79,731	79,520	69,687	99,646	996,247
2025	도축두수	112,522	72,123	78,593	95,024	75,860	78,363	84,811	85,596	141,462	65,342	73,439	95,563	1,058,698
	한우(암)	46,290	29,023	33,376	41,364	34,612	35,827	39,557	38,102	59,995	25,091	30,017	37,964	451,218
	한우(수)	56,138	33,836	36,082	43,682	33,005	34,342	36,506	38,555	68,878	31,955	34,788	46,689	494,456
	합계	102,428	62,859	69,458	85,046	67,617	70,169	76,063	76,567	128,873	57,046	64,805	84,653	945,584
2026	도축두수	120,097	64,816	79,623	83,371									347,907
	한우(암)	47,770	26,642	32,802	37,099									144,313
	한우(수)	60,896	29,986	36,216	36,848									163,946
	합계	108,666	56,628	69,018	73,947									308,259



▶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

(단위: 원)

구분	생산비	경영비	부산물수입
2021	3,780,543	2,619,164	34,395
2022	4,372,372	3,105,827	32,129
2023	4,970,361	3,457,224	57,841
2024	5,092,262	3,435,163	56,812
2025	5,172,632	3,500,040	42,824



▶ 번식우 / 비육우 마리당 사육비

(단위: 원)

구분	사육비(생산비)	일반비(경영비)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번식우	2023	3,419,680	2,390,596	793,063	198,245	37,776
	2024	3,356,165	2,276,068	824,031	219,129	36,937
	2025	3,396,304	2,307,112	839,345	218,855	30,992
비육우	2023	10,211,316	8,876,024	982,400	314,049	38,843
	2024	10,066,339	8,623,445	1,002,420	393,210	47,264
	2025	10,225,964	8,772,485	1,007,550	407,493	38,436

▶ 번식우 / 비육우 마리당 수익성

(단위: 원)

구분	순수익(A - C)	소득(A - B)	총수입(A)	비용		
				사육비(C)	일반비(B)	
번식우	2023	-1,276,285	-247,201	2,143,395	3,419,680	2,390,596
	2024	-1,115,134	-35,037	2,241,031	3,356,165	2,276,068
	2025	-860,779	228,413	2,535,525	3,396,304	2,307,112
비육우	2023	-1,425,825	-90,533	8,785,491	10,211,316	8,876,024
	2024	-1,614,214	-171,320	8,452,125	10,066,339	8,623,445
	2025	-999,202	454,277	9,226,762	10,225,964	8,772,485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02)525-1053 (내선 204)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제27권 제6호(통권 235호) / 2026년 6월 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황남현 제 작 농수축산신문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황남현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한우협회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채널추가 안내



한우산업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농가소식지 한우마당 뉴스
- ✓ 한우산업 정책·제도·사업 동향
- ✓ 협회 활동 사항 및 행사 정보
- ✓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 제공



- STEP 1**
카카오톡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
표시를 누른다.
- STEP 2**
상단 검색바에
전국한우협회를
검색한다.
- STEP 3**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